광주서 활동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

첫 앨범 발표 '관객속으로'

25현가야금·콘트라베이스·피아노로 구성
'산' '세월은 꺼지는…' 등 퓨전국악 6곡 수록
국악전수관·쌍암공원 등 길거리 콘서트도

서정적인 25현 가야금 선율과 묵직한 콘트라베이스의 저음, 그리고 영롱한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졌다. 여기에 퍼커션과 해금이 더해져 독특한 감성의 음악이 완성됐다.

광주에서 활동중인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가 첫번째 앨범 'ROOT MERGE'(포니캐논코리아 발매)를 내놓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국악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퓨전그룹들의 음반작업이 활성화 돼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주 그룹이 공식 음반을 내놓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화가 세오의 그림으로 재킷을 만든 '루트머지'의 음반.

지난 2008년 가야금 연주자 홍윤진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루트머지'는 김현화·박수지(피아노·작곡), 최동일·권웅(콘트라베이스·작곡)씨로 구성된 퓨전 국악그룹이다. 그룹 이름 '루트머지'는 '뿌리'를 뜻하는 '루트(root)'와 '융합'을 뜻하는 '멀즈(merge)'의 합성어로 우리의 음악적 뿌리인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적 결합을 통해 이 시대에 적합한 대중적인 전통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디지털 싱글 '바람의 노래' 발매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발매한 이번 음반에는 총 6곡이 수록돼 있으며 모두 멤버들이 작곡한 곡들이다.

김현화씨가 곡을 만든 타이틀 곡 '산(散)'은 전통 가야금 산조를 새롭게 재해석한 곡이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김희선씨가 참여한 '세월은 꺼지는 한숨과 같네'는 가야금과 재즈보컬을 결합시킨 독특한 곡이다. 또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인 '미리내'와 디지털 싱글 앨범 수록곡 '31 Feb'도 실었다.

"지역 그룹이 음반작업을 진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예요. 서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할 때도 아쉬운 점이 많았죠. 시간도 아쉬웠구요. 깔끔한 소리를 내기 위해 보통 개별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녹음을 했어요."

홍윤진씨는 "한 멤버가 기본 멜로디를 써 오면 함께 머리를 맞대 코드를 만들고 편곡 작업을 진행하며 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번 음반 작업에는 도움을 준 또 한명이 있다. 독일에서 활동중인 조선대 출신 화가 세오(한국명 서수경)다. '한지'를 현대미술에 도입해 세계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세오는 한국전시회를 위해 광주에 머물다 루트머지의 음악을 듣고 자신의 작품 'See rosen floos II'를 음반 재킷으로 추천했다. 뿌리를 잊지 않고 그 뿌리에 근거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실험하고 창조하는 루트머지의 음악이 자신의 작품활동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음반 수록곡인 '산'은 광주 MBC가 제작한 세오의 다큐멘터리에 삽입됐으며 '왕종근의 아름다운 만남'과 영광퓨전국악페스티벌 주제곡으로 사용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루트머지'는 음반 발매를 기념해 콘서트도 준비했다.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공연을 가지며 9월에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행사에도 참여한다.

눈길을 끄는 공연은 8월과 9월 열리는 거리음악프로젝트 '루트버스킹'이다. '버스킹(buskin)'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객이 있는 곳이며 어디서든 연주하는 '길거리 공연'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홍익대 인근이나 음악페스티벌 등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루트머지'는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광주 쌍암공원과 풍암동 체육공원등에서 '루트버스킹'을 진행한다.

'루트머지'는 계속 전진한다. 우선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한 해외음악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뛰고 있다. 호주와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뮤직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무엇보다 정식 앨범이 발매됐으니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또 한국의 다양한 '장단'을 테마로 한 2집 음반의 컨셉도 세워 두었다.

멤버들의 개인활동도 활발하다. 홍씨는 MBC 음악프로그램 '난장'의 음악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가야금 그룹 '그린나래', '도드리' 멤버로 활동중이고, 박수지·권웅씨는 크로스오버 앙상블 '허브'로 무대에 서고 있다.

홍윤진씨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루트머즈만의 색깔을 담아 음악을 들으면 아 루트머지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음반은 예스24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진에 '시문학파 기념관' 세운다

영랑 생가 앞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 … 29억 들여 내년 말 완공

김윤식

박용철

정지용

한국 현대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시문학파 시인들의 예술혼을 담은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강진군은 최근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10월께 착공하기로 하는 등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앎을 위한 공간과 즐김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6월 말 마감한 전국 공모에서 건축설계는 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전시는 거진아이템이 선정됐다.

단일 시파(詩派)를 기념하는 문학관으로서는 전국 최초가 되는 이 기념관은 영랑 김윤식(金允植·1903~1950) 선생의 생가 앞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다.

600여㎡ 규모 기념관에는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이 전시될 전시공간(401㎡면적)과 자료실, 세미나실, 사랑채, 소공원, 편의시설 등이 꾸며지게 되며 건축비 19억원, 전시비용 10억원 등 총 29억원의 사업비로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문학관에는 영랑 선생을 비롯해 김현구·정지용·박용철·정인보·이하윤·변영로·신석정 등 1930년대 활약했던 시문학파 시인들의 주옥같은 시와 생활상을 담은 귀중한 사진, 유품 등을 전시한다.

강진군은 시문학파 시인들의 예술혼을 담은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을 위해 지난해 영랑 선생의 3남인 김현철씨를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군은 기념관이 건립되면 많은 탐방객이 강진을 찾아 시문학파 시인들의 시혼과 서정시의 진수를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기념관 건립 사업과 함께 전시장에 전시할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을 발굴·정리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의 061-430-318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소설 김영랑' 발굴

이동주 1967년 '현대문학'에
김윤식 일대기 실명으로 다뤄

영랑(永郎) 김윤식(金允植·1903~1950년)의 일대기를 다룬 실명소설이 발굴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11일 시문학파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인 이동주(1920~1979)가 1967년 3월 발행된 '현대문학'에 쓴 '소설 김영랑'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윤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김영랑'의 표지와 책 내용.

이 소설은 모두 11쪽(192~202페이지) 분량으로 영랑의 삶의 여정, 문단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소설에는 영랑과 함께 '시문학' 창간을 주도했던 용아 박용철과의 끈끈한 교우 관계는 물론 영랑의 인간적인 면모와 영랑이 창씨 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내용 등 항일, 민족정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소설은 영랑의 유족이나 친척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 시각으로 논픽션 형식을 빌려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설을 쓴 이동주씨는 해남 출신으로 1940년 '조광'지로 등단, 시집 '혼야' '강강수월래' 등을 냈으며 이광수·김소월·박종화 등 유명 문인 20여명을 실명화한 소설을 발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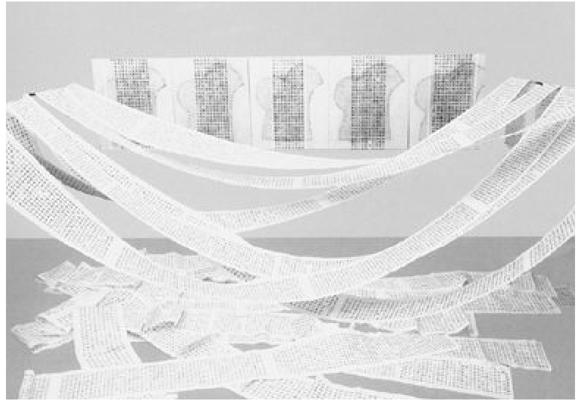
현대미술가회 'STEP BY STEP' 전시회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은 오는 25일까지 초대전 '현대미술가회 STEP BY STEP'을 갖는다.

이번 초대된 현대미술가회(회장 류현자)는 2003년 창립되었으며 광주·전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미술인들로 구성된 현대미술의 실험성을 추구하는 단체다.

현대미술가회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STEP BY STEP'이라는 주제에 맞춰 느림의 미학과 치열한 삶의 내용 사이사이의 여백에서 묻어나는 여유로운 순간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류현자 작 '사모곡-금강경'

정송규·임수영·김왕주·박미정·박수옥·이영민·정예금 등 11명이 참여해, 회화·설치 등 15점을 출품했다.

류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직접 붓글씨로 옮겨쓴 작품 '사모곡-금강경'을 선보이며 정송규는 율동적인 작은 점을 이용한 '환희'라는 작품을 통해 바람결에 움직이는 자연을 표현했다.

또 임희진은 세필을 이용해 수없이 작은 원으로 만다라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2-222-35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터울림전통예술원' 남도소리 무대에

14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터울림전통예술원(단장 이대휴)이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선다. 14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어울림…그리고 신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김오채류 설장구 놀이와 진도 북놀이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며 기타와 시낭송, 신디사이저, 춤이 함께 하는 '어울림의 미학', 다양한 민요를 만끽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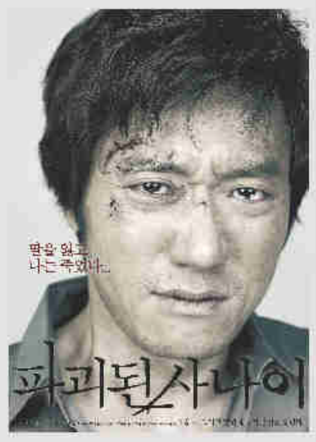
2004년 창단한 터울림 전통예술원은 터울림 공연예술단을 창단, 광주예총 찾아가는 문화활동, 일본 나카츠시 초청공연 무대 등에 출연했다.

실내악단 '고스레', 해오름예술단, 타악그룹 'PK', 기타리스트 고순남씨 등이 함께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1관	아더와 미니모이2(전체)/방자전(18세)
2관	맨발의 꿈(전체)/필립 모리스(18세)
3관	포화속으로 (12세)
4관	나잇&데이 (15세)
5관	슈렉 포에버(전체)/파괴된 사나이(18세)
6관	슈렉 포에버(3D더빙)(전체)/스플라이스(18세)
7관	이클립스 (12세)
8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세)
9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10관	이클립스 (12세)

하남점	
1관	슈렉 포에버(3D 더빙) (전체)
2관	슈렉 포에버(전체)/이클립스(12세)
3관	나잇&데이 (15세)
4관	나잇&데이(15세)/아더와 미니모이2(전체)
5관	방자전(18세)/필립 모리스(18세)
6관	맨발의 꿈(전체)/스플라이스(18세)
7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8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세)
9관	포화속으로 (12세)
10관	이클립스 (12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0600

MEGABOX

M관	이클립스 (12세) 최고급관
2관	이클립스 (12세)/슈렉포에버(전체)
3관	나잇&데이 (15세)
4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5관	슈렉 포에버(3D 더빙/디지털) (전체)
6관	포화속으로 (12세)
7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8관	킬러인사이드미 (18세) / 스플라이스 (18세)
9관	이클립스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이클립스 (12세)
2관	포화속으로(12세)
3관	킬러인사이드미(18세)/슈렉포에버(전체)
4관	슈렉 포에버(3D 더빙/자막) (전체)
5관	나잇&데이 (15세)
6관	이클립스 (12세)/맨발의 꿈 (전체)
7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